

'세종대 융복합 협력단지' 조성 본격화

광주시, 전기·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설치 시동

1331억 들어 국방·항공우주등 연구시설 구축

경기 광주시는 세종대학교와 함께 도곡면에 조성 중인 '세종대 융복합 협력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스·전기·상하수도등 기반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정에서 박관열 시장과 세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융복합 협력단지 조성

가 선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구시설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세종대는 융복합 협력단지 조성에 총 1331억원을 투자해 국방·항공우주·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력단지에는 석·박사급 연구원 900여명이 상주하며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대는 시의 기반시설 관련 행

정 지원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융복합 협력단지 설계 용역서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세종대 융복합 협력단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종대와 긴밀히 협력해 기반시설 관련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10월 설계 용역사 선정을 비롯한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윤영철 기자 jyw@sinimilbo.co.kr



대체회의에 참석한 박관열 시장이 엄동희 총장 및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천시, 모바일 전자고기 통합서비스 구축

모든 부서 공동 활용... 28일부터 정식 운영

자동차 과태료·연체 도서 반납 안내등 적용

경기 부천시는 오는 28일 '모바일 전자고기 통합서비스' 정식 운영을 앞두고 지난 18일 최종 보고회를 열어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서비스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스마트도시과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와 수행 업체 관계자 등이 참

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바일 전자고기 시스템의 구축 결과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공유하고,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과 업무별 적용 준비 상황 등을 최종 점검했다.

'모바일 전자고기 통합서비스'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하

던 행정 고지·안내문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 부서 공동 활용 시스템이다.

카카오·KT·네이버 등 공인된 자문사중계자와 연계해 시민이 다양한 모바일 채널에서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주차장 위반과태료 사전 고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실제 모바일 고지자의 발송·수신 과정과 시스템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오는 28일 정식 운영 이후에는

동북일대사업자 의무 위반 안내, 도서관 연체 도서 반납 안내, 자동차 과태료 관련 고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업무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용한다.

2027년에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 공영주차장 미납 요금 고지서, 주차구역 보강 비용 징수 안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등 4개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정 고지·안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바일 전자고기로 전환하고,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문한식 기자 mcs@sinimilbo.co.kr

안산시, 반월·시화국가産團 대청소

71개 구역 환경정화 활동

도로변·골목 쓰레기 수거

경기 안산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곳곳의 환경을 정비했다.

시는 지난 18일 산업단지 일대

를 3개 권역, 71개 구역으로 나눠 대규모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시 공직자 150여 명을 비롯해 입주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군부대, 경찰, 소방 등 18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주요 도로변과 골

목 장림지역 골목 등에 방치된 폐기물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권역별 정비는 시청 산업지원본부와 산록구청, 단원동이 각각 맡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적인 환경정비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산업단지 정경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D)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아라더론 거리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송윤경 기자 ygs@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지혜에 참여한 평화, KSC부대' 개막식에서 조종호 시장과 행사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산시, '한국전쟁 한국지원단' 기획전 개막

경기 오산시가 최근 유엔군초전기념관에서 한국전쟁 당시 지혜를 메고 탄약과 식량을 운반했던 한국지원단(KSC, Korean Service Corps)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지혜에 참여한 평화, KSC부대' 개막식과 국제 평화의 날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종호 시장, 미 제19연정지원사령부 사령관 전 에이치 박(Jin H. Pak) 준장, 한국지원단(KSC) 대대장 마이클 케이 오(Michael K. Oh) 중령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인사말과 축사, 제막식, 기획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했

으며, 참석자들은 KSC부대원들의 역할과 희생을 되새겼다.

전시는 유엔군초전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027년 8월8일까지 진행된다. '전쟁의 무게', '물자 수송', 'KSC부대의 탄생', '종전' 등 7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구역에서는 KSC부대원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는 프로그램과 지게 만들기 키트를 받아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정환 기자 mjh@sinimilbo.co.kr

연천군, 공무원 우수 제단 7건 최종 선정

경기 연천군은 최근 '2026년 연천군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회를 개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군정 혁신과 지역 발전을 이룰 우수 제단 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총 8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단 1건이 이날 최종 발표 무대에 올랐다.

발표회에서는 제안자들의 발표와 심사 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대상 1건,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에는 연천군의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 편리(Run Run) 코스를 개발하는 '연천을 그리고 먹고 놀다'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군의 각종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축제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은상에는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업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장님도 궁금한 AI와 일하는 방법'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nimilbo.co.kr

파주시-한국인공지능협회, 평화경제특구 협력

경기 파주시는 지난 주말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파주 평화경제특구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지정과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식은 순배한 파주시청에서 비롯해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김진환 부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파주 평화경제특구로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으는 한편,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nimilbo.co.kr

용인시 수지구,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에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연휴 전 성북천·정령천·탄천·안대지천 등 주요 하천과 인근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주유소 등이다.

이파트에서는 소방시설 보수와 외벽 도장, 각종 시설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토사·페인트 등이 단지 내 빗발받

'뷰티썸 수원' D-44... 기업등 120곳 참여

수원시, 11월5~7일 개최... 총 250개 부스 운영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확대... 7개국 15곳 참가

'2026 뷰티썸 수원'이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다.

'산업을 잇다, 뷰티를 즐기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2026 뷰티썸 수원(BeautySum Korea Suwon 2026)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주)수원컨벤션센터·(주)메세이상이 주관한다. 올해는 120개 기업과 기관·단체에서 25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뷰티썸 수원은 뷰티 분야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신 뷰티 트렌드와 브랜드를 체험할 기

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다.

올해는 단순 관람 행사를 넘어 전문 산업전의 성격을 강화했다. 전시 기업·기관·단체는 120개사로 2025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도 7개국 15개사(2025년 3개국 5개사)로 늘어났다.

한중일 뷰티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글로벌 뷰티 서밋'을 개최하고, 동방미국과 협력해 중국 화장품 제조사·유통사와 교류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네일, 바디·향기, 니버뷰티 제품 등 브랜드 완제품 기업과 화장품 소

재·원료, 용기·포장, 유통사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화장품 원료 홍보관, 인공지능(AD) 뷰티테크관, 뷰티산업 밸류체인 아워리는 특별관도 운영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유통업소 (ODM) 브랜드 런칭 커넥트 ▲글로벌 뷰티 서밋 ▲화장품 소재 세미나 ▲태국 비즈니스존 운영 ▲대형 유통사 입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네일 아트, 향수 만들기, 메이크업 등 체험 프로그램과 뷰티 트렌드 세미나, 뷰티 소품 만들기, 시니어 모델 패션쇼 등 무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입장료는 1인원당, 2026 뷰티썸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수원=김종민 기자 kim@sinimilbo.co.kr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전

원도심 주민 생활권에 새동지

주민 참여프로·소통활동 확대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던 청사를 원도심 중심지역으로 이전하고, 21일 오전 9시부터 새 청사시흥시 호현로 30·

구 복시농협 지하로마트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으로 행정서비스 거점을 옮겨 대중교통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행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새 청사는 기존의 행정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다양한 소품 활동을 확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도 적극 확대한다.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골목상권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내 소비와 동반 성장'이라는 선순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송윤경 기자 ygs@sinimilbo.co.kr

추석 연휴 재난·응급진료 불편 최소화

군포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공영주차장 33곳 무료 개방

경기 군포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시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8개 반, 100명의 근무자를 투입한다.

한편의 시장은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진료 공백에 대해 해 비상진료 의료기관 62곳과 휴일지킴이 약국 77곳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교통 편의를 위해 산본시가지 주변 도로의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청 민원주차장을 포함한 유료 공영주차장 33곳은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의 시장은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송윤경 기자 ygs@sinimilbo.co.kr

개방화장실 개보수 비용 지원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에 개보수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노후화된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충전소·상업시설 등 민간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 곳으로, 현재 성남시에는 149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앞서 1차 6곳, 2차 3곳을 지원했으며, 이번에는 민간 개방화장실로, 공사의 70%를 1곳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한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시설도 3년 이상 개방을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지방비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합'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주유소·충전소 개방화장실은 시청 5층 자원순환과에서, 상업시설 개방화장실은 주소지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성남=오영석 기자 ows@sinimilbo.co.kr

내달 31일 '지역예술인 축제'

인천 강화군, 참가자 모집

인천 강화군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다 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강화 지역예술인 축제'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10월31일 개최되며, 지역예술인의 공연과 예술 창작품,

문화예술 상품, 강화 특산물 등을 선보이는 아트마켓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공연예술과 아트마켓으로 나뉜다. 공연예술 분야는 대중음악, 밴드, 락, 가요공연 등 15분 이상의 공연이 가능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트마켓 분야는 예술 창작품과 문화예술 상품, 강화 특산물 등을 판매·홍보할 업체를 모집한다.

인천=문한식 기자 mcs@sinimilbo.co.kr

이나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자동차 정비업소와 주유소에서는 폐유 등 오염물질의 보관·관리 상태와 외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오염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오영석 기자 ows@sinimilbo.co.kr

의왕시 민정사, 추석 앞두고 쌀 150포 위탁

경기 의왕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끈 가운데 (사)생활불교 자정원·민정사(주지 은재스님)가 쌀 10kg 150포를 후원했다.

은재스님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사의 쌀 후원은 불교에서 공양물로 여겨지는 쌀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쌀은 일상생활에 활용되 기본적일 양식으로 이웃을 위한 후원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김성재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후원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사)생활불교 자정원·민정사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받은 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윤경 기자 ygs@sinimilbo.co.kr